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36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14일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이번에도…광주·전남 장관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 8개 부처 장관·비서실장 인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인철· 외교 박진
통일 권영세·행안 이상민·환경 한화진
해수 조승환·중기 이영·비서실장 김대기 지명
한동훈 법무장관 발탁 정국 뇌관으로

윗줄 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외교부 장관 박진·통일부 장관 권영세, 가운데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한동훈·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환경부 장관 한화진,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광주·전남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발탁되지 않았다. 전북 출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있지만 전북 인사들도 잘 모르는 '무늬만 전북'이라는 점에서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 호남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냄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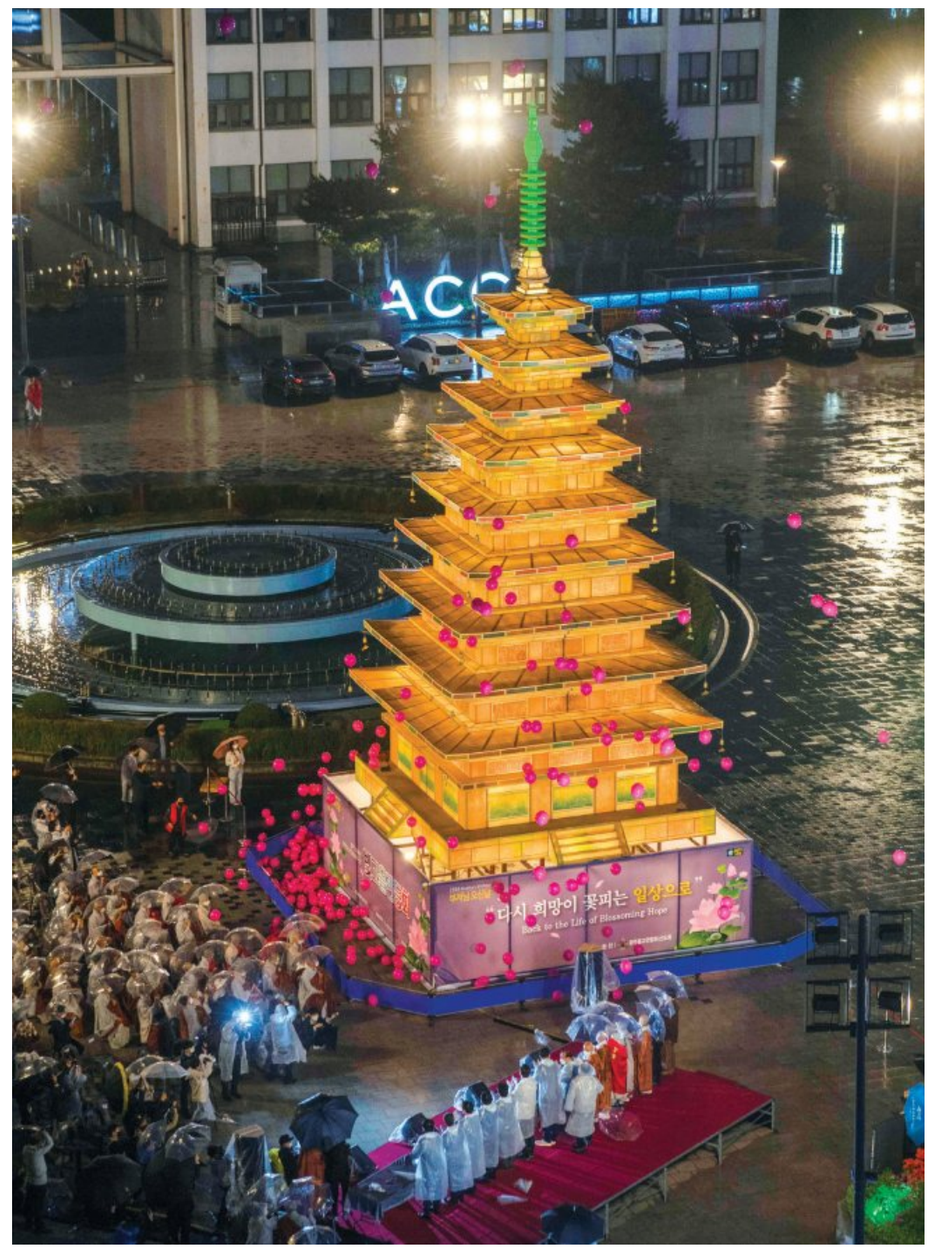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와 검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파격' 기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비서실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차 인선을 통해 발표된 장관 후보자 16명의 평균 연령은 59.7세를 기록했다. 출신 지역은 서울(4명)·경남(3명)·대구(2명), 강원·경북·대전·부산·전북·제주·충북이 각 1명씩이었다. 권역별로는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7명)·고려대(4명)·경북대(2명), 광운대·육군사관학교·한국외대 각 1명씩이었다. 총 1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3명으로, 18.75%를 기록했다.

하지만 초대 내각 인선에 광주·전남 지역 출신들은 단 한명도 발탁되지 않는 등 철저히 배제됐다. 전북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있지만 전형적인 '무늬만 전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초대 내각을 '능력을 우선해 발탁'했다는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은 호남의 자존심을 두 번 짓밟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이번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 보수 진영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역대급 수준의 '호남과의 불통' 정권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실천 과제에 호남 현안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일부분만 반영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다. 정권의 호남 배려 의지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챙겨줄 인사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남에만 불공평한 구조인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카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한동훈 장관 내정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인사 테러,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봉축탑 점등식 … "온누리에 자비를"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3일 밤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이 열렸다. 이날 점등식 행사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 염원을 담아 미륵사지 석탑 모형을 전통 한지로 제작한 20m 높이의 대형 봉축탑에 불을 밝혔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현 단체장들 공천 배제 선거판 요동

민주당, 유력 후보도 잇따라 탈락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현역 기초단체장 등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경선에서 배제될 경우 무소속 출마도 가능한 만큼 현직 단체장들과 유력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 등으로 선회할 경우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 선거는 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 후보 등의 선거구도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의 향후 거취 결정이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인 이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유두석 장성군수는 13일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함께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도 당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 역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로부터 음주운전 전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도 14일 재심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광주 광산구청장에 출마한 박시종 예비후보도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음주운전 전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다. 또한, 본인과 친인척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전남지역 일부 현직 기초단체장들도 공관위 정밀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컷오프되는 추가 현직 단체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직 단체장들은 그동안 쌓아온 조직력과 인지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한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정종순 장흥군수와 송귀근 고흥군수도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일찌감치 탄탄한 입지를 다져 민주당 후보와 맞설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3선 제한 등으로 현직이 나오지 못하고 '무주공산'이 된 광양, 곡성, 담양, 진도, 화순 등도 일찌감치 다수의 후보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거리두기 완전해제·야외서 마스크 벗는다

오미크론 유행 확실한 감소세
정부 검토, 최종방안 15일 발표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강조하고 있어 정부가 최종 수위를 고심 중이다. 〈관련기사 2면〉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과 관련된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을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야외 마스크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지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방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집회·행사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같은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각계 의견을 취합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 거리두기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5일 발표 전까지 정부 내 회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수완 딜러십 Grand Open!

신차, 인증중고차 전시장 그리고 서비스센터까지
One Stop 고객 만족 서비스!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